

호남권 가계대출 증가율 전국 최고

2007년 이후 연평균 8.4% 증가 부동산가격 상승 주택대출 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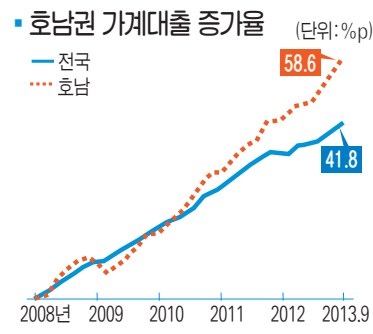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호남권 가계대출은 비은행금융기관과 주택대출,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연평균 증가율이 전국 광역경제권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5일 내놓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호남권 가계대출 동향 및 평가'에 따르면 올 9월 말 현재 광주·전남, 전북지역(이하 호남권)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46조3000억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말(29억2000억원) 대비 58.6% 증가해 같은 기간 중 전국 평균 증가율(41.8%)보다 높았다.

특히 2007년말부터 2013년 9월 중 호남권 가계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8.4%로 광역경제권 중에서 가장 높았으며 전북의 연평균 증가율(9.7%)이 전남(7.9%)과 광주(7.4%)의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상회해 호남권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는 주택대출 잔액이 9월 말 현재 24조8000억원으로 2007년말(12조3000억원) 대비 102.6%(연평균 13.1%) 증가한 반면 기타대출 잔액은 21조4000억원으로 같은 기간중 26.8%(연평균 4.2%)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권 주택대출 증가세가 높았던



것은 2009년 이후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크게 상승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부동산가격 상승은 신규이자리 창출에 따른 인구유입, 각종 국제대회 유치,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 등의 영향으로 주택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다만 최근의 높은 가계대출 증가율에도 호남권 가계대출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월 현재 6.9%로 호남

권 실질경제규모(2011년 GRDP 기준, 전국의 10.2%)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가구별 금융자산(저축액 및 전·월세 보증금 포함) 대비 가계대출 비율도 호남권(34.6%)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9월 말 현재 호남권의 1인당 가계대출 규모는 910만원으로 전국 평균(1338만원)의 68% 수준에 불과했으며 현재 1인당 이자부담액도 연 45만 5000원으로 수도권(80만9000원), 영남권(51만4000원), 충청권(53만 5000원)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호남권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8월 말 현재 0.57%로 2011년(0.53%)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나 2010년(0.71%)에 비해서는 0.14%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영남권(0.59%)에 비해 낮고 전국 평균(0.99%)의 58% 수준에 불과했다.

호남권 가계대출 차주는 주로 중·고신용자 위주이지만 7등급 이하 저신용자 대출 비중(16.2%)이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호남권 주택대출의 경우 일시상환 비율이 높은 데다 개인 및 가계의 이자부담액이 절대 규모는 작지만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자부담 효과가 유동성효과를 초과할 경우 지역의 소비여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성범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기획금융팀 과장은 "이같은 현상에 따라 금융기관은 고점관리대출 비중을 확대하고 일시상환대출의 장기분할 상환대출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등 가계대출의 잠재적 리스크 완화를 위해 대출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출이 예금 증가율 앞질러

금융위기 이후 처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대출 증가율이 예금 증가율을 앞질렀다.

금융소득에 대한 정부의 과세 강화와 STX·동양사태에 따른 대기업의 대출수요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5일 한국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9월 은행들이 받은 총예금 평균잔액은 99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2월 현재 잔액은 1000조원을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전년 동기 대비 예금 증가율은 2.7%에 머물렀다.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예금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대출은 꾸준히 늘었다. 9월 은행들이 내어준 총대출 평균잔액은 1138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1% 증가했다.

예금 증가율이 정체되다시피 하는



사이 대출이 더 많이 늘어나는 현상은 올해 들어 나타났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줄곧 마이너스(-) 상태에 머무른 '예대 증가율 갭(gap)'이 올해 하반기부터 플러스(+)로 돌아선 것이다.

대출 증가율에서 예금 증가율을 뺀 예대 증가율 갭은 2010년 9월 -16.0%포인트까지 추락했으나 올해 6월에 +0.7%포인트, 9월에 1.4%포인트로 상승했다.



이형석 광주시 경제부시장과 유신열 광주신세계 대표이사 등이 5일 광주신세계백화점 1층 광장에 개막한 '2013 광주·전남 사회적기업 판촉전' 행사장을 둘러보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서 '광주·전남 사회적기업 판촉전'

9일까지 ... 20여개 기업 참여 특산물 선보여

광주신세계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광주광역시사회적기업협의회, 광주시, 전남도와 함께 마련한 '2013 광주·전남 사회적기업 판촉전'이 개막했다.

오는 9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20여개 지역 사회적기업과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이 광주신세계 1층에

홍보·판매부스 및 일일체험관을 설치·운영한다.

판촉전에 참가한 기업들은 행사 기간 동안 전통차, 발효식품과 같은 지역특산물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건강보조식품 등 200여종의 특산물을 선보인다.

행사 첫날인 5일 지역 김치명인 브

랜드인 '김옥심 명품김치'와 이색 아이디어를 상품에 접목한 수공예브랜드인 '취한글피움'에 관람객들이 몰리는 등 인기를 끌었다.

이번 판촉전과 함께 행사장에서는 6일 현악 4중주 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8일까지 크로스오버 성악공연, 퓨전재즈, 오페라 연주, 인형극 등 다양한 문화 공연도 펼쳐질 계획이다.

"커피·피자·햄버거 중기 적합업종 지정음"

휴게음식업종양회 신청

커피·피자·햄버거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한국휴게음식업종양회는 5일 이사회를 열어 이들 3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키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양회는 이른 시일 내에 필요한 서류작업을 마치고 3개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신청서를 차례로 제출할 계획이다.

'메디칼 푸어' 급증... 의료비 부담 대비하세요

요즘 경제적 곤란을 표현하는 용어인 '푸어'는 가난과 빈곤을 뜻한다. 이 단어는 우리시대의 사회경제현상과 맞물리면서 하우스푸어, 카푸어, 베이비푸어 등으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최근 메디칼 푸어의 심각성이 커져가고 있다.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가난해지거나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메디칼 푸어가 매년 70만 명씩 늘고 있기 때문이다.

메디칼 푸어란 가족의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주택차부, 전세금 축소, 금융사 대출은 물론 사재까지 사용하는 가구를 뜻하는데 몸이 아파도 치료비가 없어 아예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 보건산업진흥원의 생애 의료비 분석 결과를 보면 평균 기대수명까지 생존하는 경우에 들어가는 생존자 1인당 생애 의료비는 남자 1억 5713만원, 여성은 1억 5801만원으로 추정되었다. 수명이 긴 여성이 20%정도 의료비 지출이 많았고, 의료비가 가



이승현 <KDB생명 광주지역본부장>

한다.

의료비 지출은 65세 이후에 생애 의료비 절반이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시에는 보장기간을 최대한 설정하는 것이 좋다. 병원비가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이 시기에 보장이 끝나버리면 치료 가능해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보장범위를 넓게 해야 한다.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가 예전

실버암 보험 가입 열풍

장 많이 들어가는 병은 암이었으며 특히 65세 이후 의료비가 급증하여 평생 의료비의 절반을 쓰고 있다.

이런 세태가 반영되어서 그런지 11월에 KDB생명에서 61세~80세 대상으로 KDB 실버암 보험을 출시했는데 판매 5일 만에 무려 5,000명의 고객이 가입해 요즘 유행하는 말로 회사가 당황했다. 지금까지 보험가입이 제한되었던 61~80세로 연령을 확대하고 심사기준은 완화, 80세까지 비갱신, 100세까지 갱신보장, 저렴한 보험료 등이 고객니즈를 충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본인이 직접 가입하는 경우도 많지만 부모를 위해 가입하는 자녀들이 더 많았다.

의료비에 대한 준비, 특히 실버세대의 의료비 준비가 덜 되었다는 뜻이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부모나 자녀 모두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고객의 의료비 확보를 위해서는 젊어서부터 보장성 보험이나 건강보험에 가입이 최선인데 가입시 유의할 점이 있다.

첫 번째, 보장기간을 길게 해야

보다 확대되어 4대 중증질환 암, 심장병, 뇌졸중은 약 80%가 지원한다. 그러나 고혈압과 당뇨 같이 꾸준히 진료비가 드는 만성질환 등 아직도 보장이 취약한 부분이 많고 또 새로운 질병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질병들을 모두 커버할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넓게 설정해야 한다.

세 번째, 보장 금액은 충분히 가입해야 한다.

암, 심장병, 뇌졸중 같은 큰 병에 걸리면 일을 할 수가 없어 소득이 끊기므로 병원비와 생활비의 부족이 동시에 발생한다.

네 번째, 젊었을 때, 건강할 때 가입해야 한다.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의료비 부담 또한 급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발병률이 높은 중대한 질병에 대한 의료비 확보도 반드시 필요하다. 실손의료보험은 물론 암보험, CI(Critical Illness)보험, 장기간병보험 등이 그것이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치료되지 않는 병이 격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가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메디칼 푸어가 될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영숙 이사, 유경선 왕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다년재직
[광주서초동화교동업, 전주고동화교동업]

성사율 호남1위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초혼 추천 회원		재혼
남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판사, 검사, 번리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업, 행정고시 합격자 VIP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여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번리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감사 27~42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남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여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감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전주서 사신동) (063) 275-7766

개업기념 특별 할인행사

돌·결혼·회갑·칠순·단체행사 등
전통한복 맞춤대어

정성 가득한 마음과 세련되고 우아한 감각으로
전통과 트렌드를 이끌어 갑니다.

이지에우리 맞춤대어전문점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62-21번지 (금남로5가역 기업을은행 옆 무례츄르 골목)
 T.062-228-6330
 일요일에도 영업합니다.